



2017년 6월 4일(제826호) **성령 강림 대축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성령은 평화의 문이며, 용서의 열쇠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었고, 소위 ‘성령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지만, 아버지이신 성부와 그리스도 성자에 비해 성령에 대해서는 비교적 난해하고 막연한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의 은사에만 집중한 나머지, 성령이라는 존재를 막연하게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하느님의 힘이라 인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성령의 작용이 마치 성령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 중 일부, 특히 방언과 예언 등으로 일어난다는 잘못된 이해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잘못된 성령 이해로 말미암아 무속신앙과 비슷한 형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의 복음이 전하는 성령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며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평화가 너희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안에 평화와 용서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 그분께서 바로 성령이심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평화는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고, 용서는 그 문을 여는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용서란 결국 내가 나의 틀을 벗어나 나와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제1독서에서는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이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언어의 장벽을 넘는다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일치 차원으로 나아가감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기적입니다.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이를 더욱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은사와 직분과 활동, 즉 서로의 다름과 다양하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남이 아닌 하나의 몸임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토록 서로 다른 우리를 ‘각자의 너와 내’가 아닌 ‘우리’로서 하나로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서는 자신만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만의 두려움에 함께 하기를 머뭇거리는 우리에게도 오늘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성령께서 함께하시기에 가능한 것이 용서이고, 혼자는 누릴 수 없지만, 성령과 함께 하면 누릴 수 있는 것이 평화입니다. 우리의 삶이 미움 끝에 용서할 줄 알고, 비판 끝에 이해할 줄 알며, 질시 끝에 사랑할 줄 아는 기적을 만들기 위함임을 기억한다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맞이하는 것이 그리 버겁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성민(기. 이퀴투스) 신부
예성대(공군 제16집비단) 상당 주임

제 1 독 시

사도 2,1-11

회 목 송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제 2 독 시

1코린 12,3ㄷ-7.12-13

부 속 기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쁨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 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 주고, 차디찬 맘 데우시고, 빛나간 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칠은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 음

요한 20,19-23

영 성 제 송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진리를 살다

하느님 말씀에의 봉시인 강론

필자가 대신학교 부제였을 때 학장신부님 영성강화 시간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분도 예부터 전해져 오는 말이라면서 다음의 우스개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강론이 8분 안에 끝나면 천사의 소리이고, 10분 안에 끝나면 사람의 소리이고, 10분이 넘으면 마귀 소리다.” 그렇다면 필자는 35년이 넘는 사제생활 중 마귀소리를 참 많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학장님의 말씀은 강론은 하느님을 선포하는 시간이니 만큼 가장 중요한 사제직무 수행이니 항상 준비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솔직히 강론은 하느님의 소리와 마귀 소리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강론 또는 설교, 무엇 때문에 해야 합니까? 미사 중에 강론을 한다는 것은 전에 비해 오늘날 우리를 싫증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미사는 그렇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지루하고 길다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강론을 짧게 한다고 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혀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강론은 강론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뒷소리가 나올 정도이다 보니 강론이 없다면 신자들은 더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강론이 없어도 미사는 「유효」하지 않습니까?

하느님 말씀의 생생한 선포는 시초부터 전례의 본질적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신약성경은 바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화해의 말씀, 그리고 은총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 집니다.”(로마 10,17)라고 사도 바오로는 로마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하십니다. 따라서 강론 없는 미사는 본질적인 것을 빼놓은 것입니다. 아무도 성변화 없는 미사거행을 유효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식탁도 풍성히 마련

되어야 하며 봉독된 말씀에 대한 설명은 필연적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각 시대에 따라 새로이 적어지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미사 강론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며 “강론은 전례의 한 부분이며 특히 주일과 축일의 신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미사에서는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전례헌장 52항)고 명백히 밝힙니다. 강론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찌우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미사경본 총지침 65항) 또 강론은 인간의 말을 통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 힘든 목표 설정이 미사 강론을 여타 세상의 담화나 주장과 구별 짓습니다. 강론이 사람의 입에서 발하는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때문에 청중뿐 아니라 말씀의 선포자인 사제에게 있어서도 큰 과제인 동시에 간절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제에게 일차적이며 가장 중대한 직무인 강론이 힘든 이유는 선포자 스스로 그 안에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강론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경 말씀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재해석하게 됩니다. 강론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신자들을 열광시키거나 재미 있게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론이 오락적 가치에 의해 판단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강론의 효과는 신자들이 성당을 떠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실제로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의해 평가되는데 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자신의 사명을 수행할 책임을 지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떠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좋은 강론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잡지 발췌』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첫 발

이 발을
울겨
저 하늘로
날아 올라보자
임의 바람따라
임께서 이끄시는대로
그래 가자.
저 파란 하늘로.



복 음 묵 상

상화이야기

교황의 의자 제대



베르니니(1598-1659)
1666년 작
상베드로 대성당, 이탈리아 로마

로마의 성베드로 대성당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광경이다. 교황님이 미사를 드리시는 발다키노(Baldacchino: 천공, 우주를 상징, 다음 주에 소개될 예정)너머로 보이는 것이 베드로 성인의 의자에 헌정된 제대이다. 사진으로만 보아도, 얼마나 거대한 사이즈인지 대략 짐작할 수 있다.

베드로 성인이 사용했다고 알려진 나무의자에 청동을 덧입혀 제작한 의자가 중앙에 있고, 이 의자의 4개의 의자 발을 교회 교부가 잡고 있다. 이 의자는 천사들과 구름에 둘러싸여 있는데, 마치 의자 자체가 두둥실 떠오르려는 것을 교부들이 잡고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

스테인드글라스에 제작된 비둘기, 그리고 그 비둘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스테인드글라스 너머로까지 청동으로 제작되었는데, 이곳에서 들어오는 빛이 실제로 이 공간을 밝게 비춘다.

김은혜(벨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성령 강림 대축일: 연무대 유능헌 신부

◆ 교구장 동정

- 용성대(공군 제20전비단) 성당 사목방문
때: 6월 4일(주일)
-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때·곳: 6월 5일(월) 15:00, 서울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국장회의
때·곳: 6월 7일(수) 09:30, 교구청 회의실
- 비룡(육군 제25사단) 성당 성요한 공소 축복식
때: 6월 10일(토) 15:00

◆ 군신교단 워크숍

때: 6월 6일(화) 10:00
곳: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대례사회 미사 및 모임

때: 6월 8일(목) 11:00
곳: 공군중앙 성당

“군(軍) 복음화, 새 열정으로” - “나희는 온 세상에 기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야리” (마르 16,15)